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Yes! The Time is *Now*

보건 의료 개혁이 미국의 경제 회복 과정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Health Care Reform Can Help the Country's Economic Recovery Process

우리는 지금 우리 생애에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흑인 미국 대통령의 선출로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다. 이것은 공직 후보에 오른 이들이 이제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아닌 그의 정책 노선에 근거하여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 주는 획기적 사건이자 증거이다. 이 나라 국민들의 우수성을 확인시켜 주는 얼마나 멋진 일인가!

바로 지금이 많은 이들이 평생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두 번째 사건, 곧 미국의 모든 시민을 위한 보건 의료 개혁을 일궈 낼 때이다.

대통령 당선자 버락 오바마는 의료 개혁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우선시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고, 의회의 주요 인사들은 개혁을 요구하는 안(案)을 상정하였으며, 미국 보건복지부 차기 장관은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담은 뛰어난 저서를 썼고,¹⁾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자신들의 우선적 관심사로 의료 개혁을 거론해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의료 개혁을 가장 중대한 개인의 경제적 문제로 꼽고 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의료 보장 정책(health security)을 시행할 역사적 기회이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세계 경제 속에서 다시 한 번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되살릴 역사적 기회이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질(質)과 효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그 탁월한 성과를 행동으로 직접 이끌어낼 역사적 기회이다.

한층 더 강화된 의료 전달 체계에서의 의료 보장 정책은 미국 국민들에게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개인의 보건 의료를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국민의 단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인가! 또한 개인 파산의 50% 이상이 의료 채무에서 기인한다고 하니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 역사의 위대한 첫 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매우 흥분되는 일이지만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원칙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변화하고, 타협하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와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2년 전 보건 사목 안팎에서 비판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인 가치-중심의 개혁을 위한 기초로서, 미국 가톨릭의료협회의 '미국 보건 의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 비전 수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나가면서 우리는 모든 요양 시설과 행정·임상 관련 인사들,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와 관점을 우리와 함



SR. Carol Keehan, DC
미국 가톨릭의료협회 회장

1) Tom Daschle et al., *Critical: What We Can Do About The Health Care Crisis*(New York : Thomas Dunne Books, 2008).

께 공유하고 싶어 하는 가톨릭 보건 의료계의 모든 인사들을 비롯하여 전국 보건 사목 관계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찾고 지원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전달받은 모든 제안과 지침들을 충분히 심사숙고 한 후 '비전' 선언문(Vision statement)을 작성하였고, 이 선언문은 개혁안(案)을 평가하는 도구이자,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의 의료 체계를 입법부 의원들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 및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목적 비전은 의회와 보건 의료 전문가 및 지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지금은 보건 사목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행동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원칙과 방대한 경험을 활용하여, 이 풍요로운 자산이 의회와 지역 공동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비전' 선언문은 인간 존엄성, 정의, 공동선, 책임, 다원주의와 같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가치들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국민과 의료 공급자 측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의료 전달 체계를 재설계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들을 그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시켰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가톨릭 대학교들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물론 미국 가톨릭교회와 가톨릭사회복지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교구민과 본당 신자들도 참여시켜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가톨릭신자들의 목소리를 규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파를 초월해서 모든 종교 공동체와 일반 대중들까지 우리가 목적인 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핵심 내용만큼은 모든 미국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경제 문제

미래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또 미국과 전 세계를 옥죄는 심각한 경제 위기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우리의 마음을 몹시 무겁게 하고 있다. 작금의 현실이 더 놀라운 것은 그 실상의 전모가 아직도 잘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의료 개혁을 뒤로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냐?' 하고 묻는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보건 의료와 경제에 커다란 실책이 될 것이다. 의료 전달 체계를 정착시키지 않고서는 강력하고 힘 있는 경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날 많은 기업, 노조, 정치 지도자들이 이를 깨닫고 창의적이고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 개혁을 경제 회복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규제 금융 계획을 만들고, 브리지론을 승인하고,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미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고 우리의 문화적 가치에도 부합하는 의료 개혁을 달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인의 창의성과 비범함에 호소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고, 소기업들의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며,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의 가혹한 임금 삭감을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에게 합리적인 기초 의료 패키지를 제공하는 의료 개혁의 시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9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초적인 건강 보험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우리의 불명예이다. 어린이들에게 기초 의료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대체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상황은 임신 중절 합법화를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까지도 완전히 상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이 시기는 도전의 시기이자 흥분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이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가 완성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해왔다. 미국 가톨릭의료협회는 이의 실현을 위해 보건 사목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 선출직 지도자들, 그 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이 멋진 여정에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결정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지혜와 용기를 갖도록 함께 기도하자.

출처 : Carol Keehan, "Yes! The Time is Now", Health Progress(January-February 2009), pp. 18-19.

번역 : 이건 CMC 임상사목연구소